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

박민규 ■ 단국대학교*

가상준 ■ 단국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가 공천된 선거였지만 이 중 상당수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소수정당 후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한정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전체 여성후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 변수가 여성후보의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성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현역 여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영남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자금의 변수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으로 한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남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 여부에, 지역구 현역 의원과,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자금 변수가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당별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압승이라는 전체적인 선거구도 속에서 현직효과가 두드러졌지만 낙선자는 영남 등 약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현직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영남, 강남 등 강세지역의 비현직 후보들의 선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연령, 재산, 선거자금 사용정도, 경력 등 후보의 개인적 특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선거 경쟁력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정당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회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강화, 지방선거로의 적용범위의 확대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제어: 여성후보, 선거 경쟁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현직효과, 정당 효과

* 주저자.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 (E-mail: nopathback@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sjka@dankook.ac.kr)

I. 서 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지역구 후보자와 지역구 당선자는 각각 209명과 29명으로 과거 어느 국회의원선거보다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총 여성의원은 57명으로 다수의 여성 상임위원장과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지역구 후보자(892명) 및 당선자(224명)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당선자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 당선자는 남성 당선자의 12.9%에 불과하며 전체 지역구 의원의 11.4%로 아직 OECD 국가와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¹⁾ 그럼에도 약간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며 앞으로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지역구 후보자는 209명으로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 후보자 65명, 132명, 63명, 98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들은 여성 후보자 공천에 소극적이며 공직선거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77명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여성 후보자는 132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 말하기 어렵다. 국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성 지역구 후보자들이 많아져야 하고 이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여성 후보자, 당선자, 그리고 의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선 경쟁력에 있어 성차(性差) 연구,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에 대한 연구, 여성 후보에 대한 인식 연구, 그리고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 등이 전개되고 있다(권수현·황아란 2017; 김정숙·김민정 2016; 서현진 2004; 오지영 외, 2005; 전진영 2009; 황아란 2002). 이 중에서도 여성 후보에 대한 성차 연구, 당선 경쟁력 등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여성의 낮은 대표성 때문이며, 여성 후보자들이 국회입성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 제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19%였지만 이는 37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29.8%(2019년 기준),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190개 회원국의 여성의원 평균 비율인 24.5%(2020년 3월 기준)와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두 기관의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3&year=2020>를 참조하기 바람.

여성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별차이가 당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는 어떤 여성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여성 후보자의 경쟁력에 있어 정당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한정해서 분석을 시도하며 정당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후보의 어떠한 요인이 당선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지 알아보며, 정당별 여성 후보의 경쟁력에 있어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여당의 압승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253개의 지역구 중 84곳에서만 승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3개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당선자에 대한 설명에 있어 정당이라는 변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본 연구는 정당 변수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봄으로써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 한다.

II. 여성 후보 경쟁성에 대한 기존 연구

여성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성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군 등 많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성별 대표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은 낮은 여성의원의 비율이 다양성 확보와 성평등 제고에 부정적이고 남성위주의 정치 문화가 국회 내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일 외 2014). 이와 함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을 앞서가면서 여성의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구분상 2021) 여성 대표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적인 측면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여성인재의 국회 진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의 국회 대표성이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여성 대표성 관련 연구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와 정당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할당제가 양적인 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렸지만 여성 정치인의 세력화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직업, 지역, 연령과 같이 질적인 차원의 대표성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김민정 2014; 윤이화 2011; 이재희·김도경 2012; 조현옥·김은희 2010).

여성 대표성이 낮은 이유를 찾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소선거구 선거제도, 한국인들의 사회화, 여성 정치인들의 낮은 자원 등 많은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천을 통해 여성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황아란 2014; 권수현·황아란 2017; 김원홍 외 2013; 박경미 2012; 유성진 2012; 정다빈 외 2명 2017).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봐야 하는데(Schlesinger 1985)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낮은 비율은 정당이 정치적 기회 제공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Sanbonmatsu 2002; Thomsen 2015). 한편 많은 연구들이 남성과 여성의 선거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후보자의 경쟁력이 남성 후보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남성 위주의 공천과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권수현·황아란 2017; 양민석 2015; 정미애·문경희 2010).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아란(2002)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선 경쟁력 측정하여 여성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제13대부터 제16대 총선에 출마하였던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은 남성 후보와 비교해 차이가 없으며, 정당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은 남성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서현진(2004)은 제17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 후보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이 공천 및 당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여성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남성 후보와 같이 정당과 지역이었지만 여성 후보의 경우 남성 후보와 비교해 개인적 배경이나 경험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된 여성 후보의 경우 학력, 재산, 정치적 경험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공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오지영 외(2005)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지역구와 전국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업 전문성과 정치적 경험, 여성단체 대표성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음

을 밝히고 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제17대 총선 이후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구에도 도전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정치권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호응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경선 등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여성 후보들에 대한 우대조항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유성진(2012)의 연구는 2012년 19대 총선의 여성 지역구 공천 및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 대표성의 제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명문화하였고 이 과정을 거친 여성 후보들이 높은 당선율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보공천 방식(경선방식)과 여성 대표성 증진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박경미(2012)는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강제와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결합할 때 여성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법적·제도적 강제성을 가지는 여성할당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권수현·황아란(2017)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성별이 당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성별이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정당 소속, 현직, 그리고 학력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여성 후보의 경쟁력이 남성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선거(강예은·황아란 2018)와 기초의회 선거(정다빈 외 2018)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대표성이 가장 낮은 광역의회 선거에서 성차에 의한 당선 경쟁력은 찾을 수 없었으며 소속정당, 지역주의, 현직 여부와 같은 정치적 배경 요인이 당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예은·황아란 2018). 반면,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 경쟁력은 남성 후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선거들과 차이를 보인다(정다빈 외 2018). 여성 후보의 소속정당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선거구제에서 기호 결정이 여성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동시에 발견하고 있다.

공천과 여성 대표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 모두 여성 대표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김민정 2009, 2012;

김원홍 외 2013). 경선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여성 후보자들은 조직력, 자금력, 인지도 동원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정 2009, 2012; 김원홍 외 2013) 하향식 공천은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서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공천을 받게 된 경우에도 여성 후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여성정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민정 2009).

낮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미국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는 연구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소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당 지도부가 여성의 정치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대표성 증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arpowitz et al. 2017). 또한, 여성과 남성 관련 정치사회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낮은 참여, 현직 의원의 유리한 위치 역시 낮은 여성 대표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있어 남성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 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여성 유권자의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높으며(Dolan 1998; Plutzer and Zipp 1996),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유권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mith and Fox 2001). 여성 후보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성 후보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은 한국 유권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원홍·김혜영 2012). 그러나 유능한 여성 정치인일지라도 남성 정치인에 비해 후보로서의 효능감에 있어 차이를 보여(Fox and Lawless 2011) 여성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회 내 비율도 낮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여성공천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는 다수이지만 정당별로 구분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 여성 대표성 연구에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에 차이를 살펴보고 원인을 찾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Kitchens and Swers 2016; Sanbonmatsu 2002). 이는 공화당의 여성 대표성은 낮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성 정치인들은 상이한 네트워크, 조직, 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Carey et al. 1998), 정당 간 양극화는 공화당 여성 후보의 경선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wless and Pearson 2008). 특히, 정당 간 양극화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많은 공화당 소속 여성 주의원들이 연방 선거에 도전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Thomsen 2015). 미국의 경우 선거에서 정치자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대표성 그리고 낮은 공화당 여성 의원 비율의 원인을 정치자금 모금과 연계시키고 있다(Crespin and Dietz 2010; Lawless and Pearson 2008; Kitchens and Swers 2016). 특히, 여성 후보들은 본

선보다는 예비경선 과정의 정치자금 모금 성공 여부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은 미국 여성 대표성이 낮은 이유를 경선이라는 관문에서 찾고 있다(Lawless and Pearson 2008). 여성 후보들의 당선 경쟁력은 남성 후보들과 비슷한 편이지만 여성 후보가 거쳐야 할 경선 경쟁률은 남성 후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 정당 현직 여성의원에 도전하기 위한 정당 경선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후보들이 겪고 있는 경선에서의 어려움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낮은 여성 대표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여성 후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적 행사(local event)라는 특징도 보이지만 전국적 행사(national event)로서의 인식도 강하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 여당과 야당에 대한 평가와 같은 거시적 지표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보니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구분해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당선 경쟁력은 정당에 의해 크게 결정되며, 현직일 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과거 연구들은 여성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재산과 같은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연구들에서는 정치자금 모금력을 경선과 본선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도 여성 후보의 정치자금과 재산의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I. 가설과 통계적 결과

1. 가설

본 연구는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 즉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선 여부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독립변수라 하겠다. 한편, 여성의 선거 경쟁력을 알아보는데 있어 당선 여부의 중요성과 함께 득표율 또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후보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일한 독립변수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그 외 다른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 이외에 여성 후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정당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거대정당의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여성 후보들의 경쟁력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당과 지역이 개인 외적인 면이라면 현직 여부, 연령, 경력, 재산 등과 같은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현직에 있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은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현직 여성 후보는 다른 여성 후보보다 높은 선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연령 또한 선거 경쟁력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젊은 여성후보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여성 후보일수록 선거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여성 후보 역시 재산 및 자금 모집 능력은 선거 경쟁력을 보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재산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면 정치자금 모집액은 인지도, 평판, 그리고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재산이 많은 여성 후보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정치자금을 많이 모금한 여성 후보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여성 후보들의 경력은 선거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경력은 후보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의 경력은 다양한데 단체장과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직 경력, 법조인, 교수와 같은 전문직 경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의 활동과 같은 경력 등은 선거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2. 정당별 여성 후보 관련 통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를 정당별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총 209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하였고 이 중 29명이 당선되었다. 이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표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3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그 중 32명이 여성 후보였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36개 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이 중 26명이 여성 후보였다. 두 정당의 여성 후보 비율은 각각 12.65%, 11.02%로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비해 소정당인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은 많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여성 후보의 비

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235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여성 후보는 77명으로 다른 정당들과 비교해 가장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209명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을 놓고 보았을 때 여성 후보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정당별 후보 및 여성 후보

정당	전체 후보자	여성 후보	비율
더불어민주당	253	32	12.65%
미래통합당	236	26	11.02%
민생당	58	4	6.9%
정의당	75	16	21.33%
우리공화당	41	8	19.51%
민중당	59	28	47.48%
국가혁명배당금당	235	77	32.76%
기타 정당	28	8	28.6%
무소속	116	10	8.62%
계	1,101	209	18.98%

정당별 여성 당선자를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3개 정당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미래통합당이 8명, 그리고 정의당이 1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 다른 정당에서는 여성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에 있어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두 정당 간 첨예한 대결로 좁혀지면서 소수정당 후보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정당 중심의 선거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소수정당 여성 후보의 당선율도 매우 낮은 편이었다.²⁾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소수정당 여성위원의 국회 입성이 있었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유일하다.

〈표 2〉 정당별 여성 당선자

정당	여성 후보	당선자 수	비율
더불어민주당	32	20	62.50%
미래통합당	26	8	30.77%
정의당	16	1	6.25%

3. 통계적 분석

여성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속변수는 여성 후보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이며 독립변수로 연령, 현역의원 여부, 정당, 재산 및 선거자금 소진 비율, 지역주의, 그리고 후보들의 경력을 포함하였다.³⁾⁴⁾ 현역의원을 지역구 현역의원과 비례대표 현역의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지역주의 변수로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포함하였다.⁵⁾ 후보들의 경력은 지방의원 혹은 단체장 선출직 경력, 변호사 등의 전문직,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은 당선 여부에 대한 결과, <표 4>는 득표율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친 중요 요인으로는 현역 지역구 의원, 민주당, 그리고 영남 미래통합당 변수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후보들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은 당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당선 가능

-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사용한 선거자금/허용된 선거자금’으로 각 지역구별로 허용된 상한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거자금 변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거자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참고로 허용된 선거자금 모금액의 최저는 1억 4300만원이고 최고는 2억 9700원이었다.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 4) 후보들의 경력은 선출직, 전문직, 시민단체 경력 여부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선출직은 지방의회, 지자체장 경력, 전문직은 율사, 대학교수, 보건의료(의사, 약사, 간호사) 경력,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5)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포함하려 하였으나 1명밖에 없어 변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남에서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가지는 현직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역의원이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가지는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연령과 재산, 선거자금의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여성 후보의 경력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대정당의 여성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현직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에서 보듯이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져야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의원들의 국회 내 비율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영남과 호남에서 여성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영남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 후보들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크며 국회 내 여성 의원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표 3〉 여성 후보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모델

변수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51	0.039
도전자	현역 지역구	1.935**	0.920
	현역 비례대표	0.539	0.930
그 외 정당	민주당	4.655***	1.513
	미래통합당	2.023	1.807
영남*미래통합당		3.037**	1.254
재산		0.001	0.001
선거자금		1.358	1.960
기타 경력	선출직	-0.115	1.160
	전문직	-0.925	0.709
	시민단체	0.423	1.057
상수항		-2.949	2.134
Nagelkerke R ²		0.677	
적중률		92.3%	
N		209	

***p<0.001, ** p<0.05

여성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현역 여부, 정당 효과, 지역주의 그리고 선거자금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의 현직효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현직의원일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얻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효과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일수록 다른 정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고 있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남 미래통합당 후보의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선거자금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선거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후보들의 득표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자금이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득표율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선거자금은 사용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모금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표 4〉 여성 후보 득표율에 대한 회귀모델

변수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006	0.0004
도전자	현역 지역구	0.123***	0.018
	현역 비례대표	0.062***	0.022
그 외 정당	민주당	0.323***	0.019
	미래통합당	0.280***	0.023
영남*미래통합당		0.106***	0.027
재산		-8.52E-07	0.00002
선거자금		0.142***	0.026
기타 경력	선출직	-0.017	0.012
	전문직	-0.022	0.015
	시민단체	-0.028	0.017
상수항		0.027	0.024
수정된 R ²		0.917	
N		209	

***p<0.001, ** p<0.05

위의 결과들은 여성 후보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거대정당이 정치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도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준연동제비례대표제 채택으로 인해 두 정당 간 경쟁이 더욱 치열했고 제3의 정당들이 경쟁에 끼어들기 힘든 구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정당의 영향력과 함께 현직효과와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역 의원들은 득표와 당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후보자의 연령과 경력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보다 소속 정당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IV.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분석

1. 당선 여부와 득표율

앞선 결과는 모든 여성 후보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정당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⁶⁾ 두 정당 여성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이 민주당 변수와 영남*미래통합당 변수의 영향력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비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들 역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발견되었던 현직효과를 두 정당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현직보다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들의 경력 및 연령변수 역시 여성후보의 당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정당의 영향력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당선 가능성은 후보의 개인적 요인보다는 정당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6) 두 정당 여성 후보가 58명으로 N이 충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독립변수가 많아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분석이라는 것을 밝힌다.

〈표 5〉 두 정당 여성 후보 당선 여부에 대한 회귀모델

변수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66	0.045
도전자	현역 지역구	1.450	0.884
	현역 비례대표	0.199	0.926
민주당		2.534***	0.974
영남*미래통합당		2.965**	1.219
재산		0.001	0.001
선거자금		-0.850	2.140
기타 경력	선출직	0.021	1.173
	전문직	-0.689	0.688
	시민단체	1.010	1.256
상수항		1.760	2.919
Nagelkerke R ²		0.384	
적중률		81%	
N		58	

***p<0.001, ** p<0.05

두 정당 여성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현역 지역구, 영남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선거자금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득표율 설명에 있어 현역 지역구 후보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미래통합당의 영남 후보들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득표율에 있어 선거자금의 중요성이 다시 발견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정치자금이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반면 민주당 변수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두 정당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당선에 민주당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었지만 득표율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은 미래통합당과 비교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후보의 경력과 연령 또한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실제 두 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6.65%, 미래통합당 44.27%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두 정당 여성 후보 득표율에 대한 회귀모델

변수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02	0.002
도전자	현역 지역구	0.118***	0.039
	현역 비례대표	0.058	0.043
민주당		0.049	0.039
영남*미래통합당		0.109**	0.051
재산		0.00001	0.00005
선거자금		0.246**	0.096
기타 경력	선출직	-0.013	0.033
	전문직	-0.028	0.054
	시민단체	-0.036	0.052
상수항		0.289	0.124
수정된 R ²		0.228	
N		58	

***p<0.001, ** p<0.05

위의 결과를 통해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과 지역으로 개인적인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역 지역구라는 현직 효과, 영남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선거자금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개인 외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두 정당이 여성 정치인의 국회 진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미국 여성 대표성 증진에 있어 정당 지도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Karpowitz et al. 2017)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하겠다.

2. 정당별 분석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이 정당과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구도로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정당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현직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역의원(지역구, 비례), 그리고 도전자로 구분해서 당선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분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역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높은 당선율을 보여주었으며 비례대표 의원들

도 높은 비율로 당선에 성공하였다.⁸⁾ 이에 비해 비현역 후보들의 당선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직효과, 특히 지역구 의원의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비례대표 의원 중 오직 4명만이 재선을 위한 본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경선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많기 때문이었지만 지역구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 민주당 현직 여부에 따른 당선/낙선 구분

구분		당선 여부		전체
		낙선	당선	
현직 여부	도전자	10	8	18
	현직(비례대표)	1	3	4
	현직(지역구)	1	9	10
전체		12	20	32

카이제곱: 5.997(p=0.050)

더불어민주당 여성 후보들을 출마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듯이 당선된 후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에서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반면 낙선한 의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부산, 대구, 경북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출마한 여성 후보는 1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후보들의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세 지역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약세 지역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후보를 공천한 지역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7개 광역지역 중 7곳에서만 여성 후보를 공천하였고 충청, 강원, 전북과 전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여성 후보를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후보들이 성공적으로 국회에 입성하였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성 후보들이 마주하는 장벽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 후보의 국회 진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다.

8)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중 재선에 실패한 의원은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과 박경미 의원(서울 서초을)이다.

〈표 8〉 민주당 후보들의 지역별 구분과 당선 여부

구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경북	
당선 여부	낙선	3	3	1	1	0	1	3	12
	당선	10	0	0	0	1	9	0	20
계		13	3	1	1	1	10	3	32

다음은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와 현직효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9>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재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각각 1명뿐이었다.⁹⁾ 아이러니하게도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현직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당선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윤희숙(서울 서초갑), 배현진(서울 송파을),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은혜(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등 비현직 후보가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이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중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도전한 의원의 수는 6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재선 도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미래통합당 현직 여부에 따른 당선/낙선 구분

구분		당선 여부		전체
		낙선	당선	
현직 여부	도전자	9	6	15
	현직(비례대표)	5	1	6
	현직(지역구)	4	1	5
전체		18	8	26

카이제곱: 1.432(p=0.489)

9)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입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는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만이 제21대 국회에 입성하였다.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의 지역별 공천과 당선 여부를 살펴보면 부산, 대구, 경북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천된 후보들도 많지 않았지만 국회에 입성한 후보도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역시 강세 지역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당선된 후보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경북으로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 공천은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충청지역도 2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표 10〉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지역별 구분과 당선 여부

구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당선 여부	낙선	6	1	1	1	1	6	1	1	0	18
	당선	2	2	1	0	0	1	0	0	2	8
계		8	3	2	1	1	7	1	1	2	26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를 현역의원 여부 그리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한 특징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두 정당 여성 후보 공천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점은 무엇보다 낮은 여성 후보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각각 12.65%, 11.02%로 매우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정당은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에 인색한 편이다. 여성위원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 후보의 공천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강한 선거 경쟁력을 지닌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이다.

정당별 당선된 후보와 낙선된 후보의 연령, 재산, 선거자금 사용 정도, 경력을 비교해 보면 모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이는 후보의 개인적

10)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후보와 낙선후보,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후보와 낙선후보로 구분하여 이들의 연령, 재산, 선거자금 사용 정도, 그리고 경력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당별 당선분석에 있어 후보들의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징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현재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은 정당과 공천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현역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은 존재하지만 이는 정당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 정당의 영향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 의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을 대신하여

국회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제21대 국회도 보여주고 있는데 300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은 57명(비례대표 28명, 지역구 29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제20대 국회의 51명(비례대표 25명, 지역구 26명), 제19대 국회 47명(비례대표 28명, 지역구 19명)과 비교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다. 여성 후보들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 후보와 비교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황아란 2002), 그렇다면 어떤 여성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 출마한 여성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또한,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당선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는 정당과 지역, 그리고 현역 지역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한 경쟁력을 보였고,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여성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정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당, 현직효과,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 여부, 그리고 선거자금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다른 후보들보다 높았으며 현직에 있는 의원들의 득표율은 도전자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선거자금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선거자금 자체보다는 선거자금

모금을 통해 보여주는 후보의 경쟁력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선과 득표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정당과 지역(영남*미래통합당 후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득표율에 있어서 현역 지역구 의원, 영남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자금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개인적 요인보다는 정당의 영향력 보여주는 결과다.

정당별로 구분하여 현역의원 여부와 당선 여부, 지역과 당선 여부를 교차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과 현역 지역구 의원 모두 비현역 후보들보다 높은 당선율을 보여주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편, 공천 지역과 당선 여부를 살펴보면 두 정당 모두 강세 지역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이 매우 적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미래통합당 소속 도전자로 당선된 후보들을 보면 모두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남에서의 여성 후보 공천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호남에서 여성 후보 공천은 단 한 명뿐이었다. 두 정당 모두에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본선거에 진출한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성 후보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관문은 경선이며(Lawless and Pearson 2008), 이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경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본선거라는 또 다른 관문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는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에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 정치인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정당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남성 후보의 경쟁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과거 다른 선거에 비해 정당 중심의 선거였다는 점에서 정당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선거로 정당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는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선거였다. 이는 정당이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여성의원의 대표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며 특히, 정당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여성 후보 공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원 대표성 증진에 있어 정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강예은·황아란 2014; 권수현·황아란 2017; 김원홍 외 2013; 박경미 2012; 유성진

2012; 정다빈 외 2명 2017; Karpowitz et al. 201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에 있어 정당의 중요성은 무소속 후보를 통해 더욱 찾을 수 있다. 남성 후보 중에는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과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과 같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후보 중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정당의 지원 없이 여성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차이점은 미래통합당 여성 후보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정당의 여성 후보를 비교해 보면 15:18(제18대) 21:16(제19대), 25:16(제20대)로 더불어민주당 여성 후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제19대를 기점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보다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여성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6명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정당 지도부의 책임도 있지만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 여성 후보들이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경선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 후보 신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Lawless and Pearson 2008; Thomsen 2015) 이러한 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국회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 소속 기초 및 광역의원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여성 후보 공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여성 후보 공천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여성 대표성 확대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여성 후보들의 개인적 요인은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연구들은 여성 후보들의 개인적 요인 즉 학력, 재산, 정치 경험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서현진 2004; 오지영 외 2005). 그러나 여성 후보의 개인적 요인들이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당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선거는 철저하게 정당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 내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선거에서 정당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후보 비율을 높이는데 있어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에 있어 여성 후보의 경력 혹은 현직 여부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의 영향력에 비교하면

미비한 편이다. 특히, 여성 후보의 경쟁력이 정당이 가지는 자체 경쟁력 그리고 지역 경쟁력 속에 있음에도 이를 여성 후보의 개인 경쟁력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은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내 여성 대표성을 늘리는 방안은 거대정당의 여성 공천률, 특히 특정 지역에서 여성 공천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보상(reward)체제를 처벌(punish)체제로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지방선거에도 적용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여성정치 발전과 여성 대표성 확장에 화수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치가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 양극화, 정치신뢰 하락, 극단적 혐오정치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구본상. 2021. “여성, 간과된 변수: 투표율에서의 성차(Gender Gap) 분석.” 『의정연구』 27(1), 5-40.
- 권수현, 황아란. 2017.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1(2), 69-92.
- 김민정. 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14(2), 203-241.
- _____. 2012.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아시아여성연구』 51(1), 37-70.
- _____. 2009.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사회과학연구』 17(1), 50-83.
- 김영일, 이정진, 조주은. 201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원홍, 이수연, 김민정, 전선영. 2013.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6(1), 31-52.
- _____, 김혜영. 2012. 『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숙, 김민정. 2016. “여성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OUGHTOPIA』 31(2), 197-222.
- 박경미. 2012. “여성할당제의 적용 요인 연구: 제19대 총선의 여성 지역구 후보의 정당 공천.” 『의정연구』 18(3), 73-103.
- 서현진. 2004. “17대 총선 여성 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정치논총』 44(4), 263-289.
- 양민식. 2015.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1(3), 203-231.
- 오미연, 김기정, 김민정. 2005. “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제15·16·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3), 369-397.
- 유성진. 2012. “19대 총선과 여성 대표성: 후보공천방식과 여성대표성 증진.” 『동서연구』 24(3), 207-229.

- 윤이화. 2011.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 제 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153-186.
- 이재희, 김도경. 2012.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2(3), 7-41.
- 전진영. 2009. “여성의원은 양성평등법안을 더 지지하는가?” 『의정연구』 15(2), 187-217.
- 정미애, 문경희. 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9, 183-216.
- 조현옥, 김은희. 2010.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79, 110-135.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203-222.

영문 자료

- Carey, John M., Richard G. Niemi and Lynda W. Powell. 1998. “Are Women State Legislators Different?” in *Women and Elective Office: Past, Present, & Future*, edited by Sue Thomas and Clyde Wilco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pin, Michael H. and Janna L. Dietz. 2010. “If You Can’t Jon’Em, Beat’Em: The Gender Gap in Individual Donations to Congressional Candida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3(3), 581-593.
- Dolan, Kathleen. 1998. “Voting for Women in the ‘Year of the Woma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1), 272-293.
- Karpowitz, Christopher F., J Quin Monson and Jessica Robinson Preece. 2017. “How to Elect More Women: Gender and Candidate Success in a Field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4), 927-943.
- Kitchens, Karin E. and Michele L. Swers. 2016. “Why Aren’t There More Republican Women in Congress? Gender, Partisanship, and Fundraising Support in the 2010 and 2012 Elections.” *Politics & Gender* 12, 648-676.

- Lawless, Jennifer L. and Kathryn Pearson. 2008. "The Primary Reason for Women's Underrepresentation? Reevaluating the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Politics* 70(1), 67-82.
- Plutzer, Eric and John F. Zipp. 1996. "Gender Identity and Voting for Women Candidates." *Public Opinion Quarterly* 60(1), 30-57.
- Sanbonmatsu, Kira. 2002. "Political Parties and the Recruitment of Women to State Legislatures." *Journal of Politics* 64(3), 791-809.
- Schlesinger, Joseph A. 1985. "The New American Political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4), 1152-1169.
- Smith, Eric R.A.N and Richard L. Fox. 2001. "The Electoral Fortunes of Women Candidates for Congres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205-221.
- Thomsen, Danielle M. 2015. "Why so Few(Republican) Women? Explaining of Women in the U.S. Congr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0(2), 295-323.

Abstract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Women Candidat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Minkyu Park ■ Dankook University

Sangjoon Ka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women candidat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women candidates in history, but many of them were candidates from the minor Party with little chance of winning. Therefore, another analysis was attempted, limited t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United Future Party(current People Power Party).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incumbent candidat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candidates of the United Future Party in Yeongnam reg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oral results of female candidates. On the other hand, as factors affecting the vote share of women candidates, the study found that incumbent effect, the Democratic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candidates in the Yeongnam region, and campaign spending were found to be important. When focused on the Democratic Party, the incumbent effect was prominent in a landslide victory, but most of the losers were in weak areas such as the Yeongnam reg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Future Party, no incumbent effect could be found, but challengers from advantageous constituencies such as Yeongnam region and Gangnam performed well. On the other hand, it appears that the candidate's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wealth, campaign spending, and career had no effect on the electoral res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y effe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having an influence on competitiveness of women candidat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is implies that strong ac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women's quota system in constituencies and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local elec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Key Words: women candidates, electoral competitiveness, 21st General Election, incumbent effect, party effect

